



니켈과 스테인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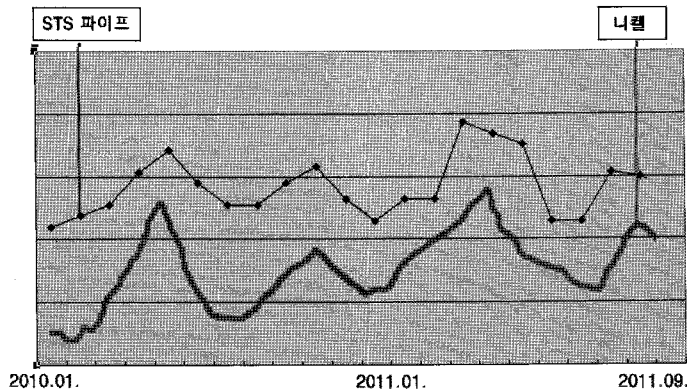
김현회 원켄네트웍스 사업총괄본부장

스테인레스강은 철과 니켈, 크롬이 주 성분이다. 그 중에서 니켈이 차지하는 비율은 304계열 제품의 경우 8%에 불과하다. 그런데 STS 파이프 등 스테인레스 스틸 제품 원가의 60%를 차지하는 것이 니켈 가격이다. 결국 니켈 가격이 스테인레스 스틸 제품 가격을 좌지우지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설비건설분야에서도 스테인레스 관련 제품이 공중에 따라 많이 투입되는 경우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니켈의 국제 시세를 중심으로 스테인레스 제품 가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2011년 10월~ 2011년 11월 자재 동향)

| | |
|--------------|---|
| 자재 전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월 STS관 인하 가능성 있음. 강관류 보험세로 소폭 인상조짐 보임. LME 인하 예정. 단, 환율과 국제 정세가 변수 - 형강류, 스크랩은 하락세이나 환율, 수입 부진, 수요 불균형 등의 상황으로 보아 보험세 유지 또는 소폭 인상 가능 |
| 강관 및 관련 제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강류 철스크랩은 인하 추세이나 높은 환율로 수입물량이 적어짐에 따라 국내산 제품의 가격이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강관은 원소재의 인상이 확정됨에 따라 제강사에서 단가를 올리고자 하나, 현재 수요, 공급의 불균형과 각 대리점의 재고 물량, 연말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단가는 보험세 또는 밀어내기식 저가 정책 가능성 높음 |
| 동관 및 관련 제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월 LME 시세는 398원 인하된 9,581원으로 확정 -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거래된 비철금속 가격은 유로존에 대한 해법이 도출되지 않아 관망세를 보였고, 알루미늄을 제외하고는 1% 미만의 변동성을 보였음. 유로존의 해법이 도출되기까지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상승이 제한적일 것임 - 11월 LME 시세는 400원 ~ 500원 선에서 인하 예상됨 |
| STS관 및 관련 제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월 STS관 BASE는 동결됨 - 10월말 현재 니켈 국제시세 톤 당 18,000~19,000불 유지. 10월 말 국제정세 및 환율에 큰 변화가 없다면 니켈 단가는 약보험세 예상 - 11월 STS관 BASE는 약 30원~80원 인하 또는 동결 전망 |
| 구매 전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 부진을 타개하기 위하여 저가 정책을 펴는 공급사가 많아 실 투입물량으로 비교 견적함이 유효함 - 일부 공급사들이 자금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밀어내기식 저가 영업을 하고 있으나 공급 중단 우려가 있으니 유의해야 함 |

[STS파이프 및 니켈 국제 가격 추이]



(자료: 원켄네트웍스 2011년 10월)

니켈은 스테인리스 제품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원료이지만 소량만 투입하면 된다. 문제는 원자재 가격이 높아 스테인레스 최종 제품 제조 원가의 60% 정도를 차지한다는 데 있다. 그래프를 보아도 스테인레스 파이프 가격과 니켈 국제 시세가 거의 연동하여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국제적인 니켈 공급사의 대형화와 과점화, 자원보유국의 자원보호주의 확산,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한 투기성 자금의 유입 등으로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니켈의 경제적, 안정적 확보가 스테인리스 제품 경쟁력 제고의 필수요건이 되어 가고 있다.

이를 의식하여 포스코 같은 경우는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중국의 장가항포항불수강, 베트남의 포스코 VST, 터키의 포스코 ASSAN TST 등 글로벌 주요 권역에 고부가가치 스테인리스 생산, 판매 체제를 구축해 왔다. 최근에는 동남아 최대이자 태국 유일의 스테인리스 냉연사인 타이 녹스를 인수해 부가가치가 높은 냉연생산비율을 높여 동남아 시장의 주도권을 공고히 했다.

포스코의 전망에 따르면 스테인리스 가격은 글

로벌 경기침체로 약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한다. 다만 니켈 가격이 1만8천달러 이상 유지될 경우, 저점 인식 확산으로 스테인레스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스테인레스 파이프, 프렌지, 코일 등 관련 제품을 다량 구매하는 회원사의 경우는 국제 가격 추세를 예의 주시하여 구매 시점을 정확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현재 추세로 볼 때 니켈의 4분기 가격은 유럽 재정 위기 및 미국 경기 침체 우려로 1만8천에서 2만달러 사이에서 박스권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



김현희(金炫會) 총괄본부장

- 現 원켄네트웍스 사업본부장
-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졸업
- 삼성그룹 디자인연구소 및 UCLA Extension 수료(멀티미디어 부문)

- 삼성화재 홍보, 시장개발, 인터넷 사업 담당(사보, 사장단 연설문, 방송PD, 보도자료, 인터넷 기획, 전국 애니카랜드망 구축 등 담당)